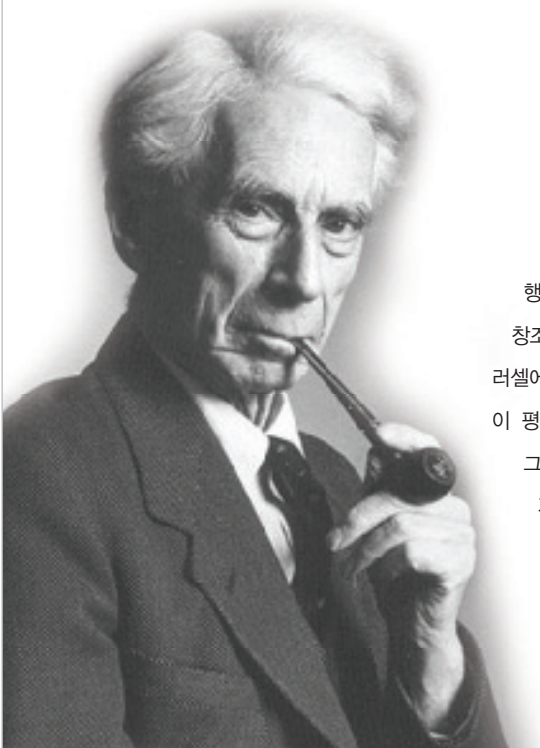


행복한 사람은 파괴적일 수 없다

| 김홍호 |

일생동안 전쟁을 반대하고 자유와 정의, 사랑을 이야기한 러셀은 수학·철학·문학서에 이르는 광범위한 영역에서 100여 권에 달하는 서적을 97세에 이르기까지 정열적으로 써냈고, 그 내용을 실천 하였습니다(편집자주).



러셀은 행복한 생활이 곧 선한 생활이라고 한다.
행복한 사람은 일체에 대해서 파괴적이 될 수 없고
창조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러셀에 있어 행복은 타인과의 조화에서만 얻어진다.
이 평화로운 조화는 눈 뜬 사람만이 해낼 수 있다.
그에게 있어서 좋은 생활은 사랑을 동기로 하고
지식의 지도를 받는 생활이다.

러셀은 스피노자를 좋아한 사람이다. 그의 서재에 걸려있는 유일한 그림은 스피노자의 초상화였다. 그는 스피노자의 정열과 그의 간결을 좋아하였다. “정열은 이성의 소리요, 간결은 탁월의 상징이다”라고 그는 말한다. 러셀의 정열은 100권의 저서를 세상에 내놓았다. 그의 깊은 정열은 언제나 그의 무서운 창작력의 원동력이다. 이 정열 때문에 22세, 49세, 64세, 80세에 네 번씩이나 결혼을 하기도 하였지만 그것으로 인해 그의 작품생활이 중단된 일은 없었다. 그의 작품은 그로 하여금 영국 최고의 문화훈장과 노벨문학상을 타게 하였다. 그것이 1950년 그가 78세 되던 해였다.

러셀의 간결은 평화를 위한 반전운동이다. 그의 탁월한 반전운동은 그의 간결한 지성에 기인한다. 지성이란 앞을 볼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요, 인간은 누구나 지성의 눈이 있는 한 충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충돌은 장님들이나 하는 것이지 눈 뜬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다. 그는 인류의 충돌을 막기 위하여 인류의 눈을 뜨게 하고 인류의 잠을 깨우기 위하여 89세에 눈을 맞으면서도 국방성 앞에서 핵 반대 연좌데모를 벌이다가 1주일씩 감옥 속에 들어가기도 했고, 제1차대전 때에는 징집반대에 앞장을 섰다가 대학에서 쫓겨나고, 6개월의 금고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4개월 반 만에 나오기도 하였다.

러셀은 정열과 간결로 평생을 꿰뚫은 사람이다. 그에게 있어 자연은 정열의 발이며, 신은 간결의 눈이었다. 러셀에 있어 인간은 신적자연이다. 인간은 하나의 돌에 불과하지만 거울과 같이 만물을 밝힐 수 있는 눈을 가진 돌이다. 그는 자기의 「철학의 발전」이란 책에 “나는 진리란 사실과의 관계에서 성립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우주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은 우주라는 책의 마지막 부분의 각주(脚註) 정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인간을 거기서 끄집어 내

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젊어서는 감성과 감성 위에 세워진 사상은 감성을 초월한 사상으로만 해방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감성과 그 위에 세워진 사상은 감옥의 창살이 아니라 감옥의 들창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들은 완전치는 않지만 라이프니츠의 단자처럼 세계를 비칠 수가 있고, 철학자는 똑바로 그것을 비칠 수 있는 거울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인간의 고유한 이지러짐도 확인해야겠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편견은 사람은 언제나 이 순간, 그 자리의 입장에서만 세계를 바라보지, 종교가들이 신에게 돌리는 저 광대하고 공평한 입장에서 세계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절대적인 공평에는 도달할 수 없다고 해도 그런 방향으로 접근해 갈 수는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표로 길 안내를 맡는 것이 철학자의 최고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라고 쓰고 있다.

그에게는 언제나 자연과 논리가 붙어다닌다. 논리적 실증주의 또는 논리적 원자론이 그의 입장이다. 그는 모든 철학개념을 그 이상 더 분석할 수 없는 원자(原子)적 개념까지 추구하여 이 개념의 참을 오직 밖에 있는 사물과의 일치에서 찾고(感學的實證), 일단 이 개념들이 결합하여 판단을 형성하게 되면 이러한 분자(分子)적 명제의 참은 그 명제들 간의 논리적 검토(論理的分析)를 통하여 밝혀진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실증과 논리를 결합하는 논리적 실증주의가 나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철학은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철학이 아니라 사물을 찾아 밖으로 나가는 철학이다.

“행복한 사람은 객관적으로 사는 사람이요, 자유로운 애정과 넓은 흥미의 세계를 가진 사람이요, 이러한 애정과 흥미를 통해 자기 의도로 남에게 흥미와 애정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다. 남의 사랑을 받는 것

은 행복의 큰 원인이 된다. 대체로 남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은 남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이다. 최고의 애정은 서로 생명을 북돋아준다. 기쁨으로 애정을 자연스럽게 주고받을 때 온 세계가 행복의 빛으로 물들여진다.”

러셀은 행복한 생활이 곧 선한 생활이라고 한다. 행복한 사람은 일체에 대해서 파괴적이 될 수 없고 창조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러셀에 있어 행복은 타인과의 조화에서만 얻어진다. 이 평화로운 조화는 눈 뜬 사람만이 해낼 수 있다. 그에게 있어서 좋은 생활은 사랑을 동기로 하고 지식의 지도를 받는 생활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랑이 교리가 되어버리고 지식이 권위가 되어버린 기성 종교를 몹시 싫어한다.

“종교는 자유, 정의, 사랑을 토대로 하는 것이지 권위, 율법, 지옥의 불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언제나 개인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종교를 배격하고 사회를 개조하는 원리가 될 수 있는 종교를 찾는다. 물론 이런 종교의 지도 원리는 지성에 근거하는 것이지, 신앙에 근거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종교의 신앙적인 독단을 무엇보다도 싫어한다. 그는 기성 종교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새로 일어나는 종교, 독일의 나치즘, 소련의 공산주의, 그리고 미국의 자본주의도 모두 배척한다. 러셀은 어떤 종교나 국가를 막론하고 독단적인 신조를 가지고 권위로서 임하는 모든 거짓에 강력하게 반대한다. 그는 강대국가가 있다는 사실 그 자체를 반대한다.

“강대국가의 존재는 전쟁과 개인의 파멸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국가는 국민에게 권력을 위한 아무런 요구도 가져서는 안되며 다만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위생, 의무교육, 과학의 발전 등이 있을 뿐이다”라고 뜻을 밝는다.

그는 인류의 미래를 전멸로 이끌려는 검은 그림자와 끊임없는 투쟁을 계속한다. 그의 호소는 언제나 단순하고 솔직하였다. 그가 1954년 원자수소폭탄 금지를 세계에 호소할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하나의 인간으로서 인류에게 호소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만 생각하고 그 밖의 것은 모두 잊어버립시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새로운 낙원은 열릴 것입니다. 만일 그것을 할 수 없다면 인류에게는 멸망 외에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그는 마치 어린애처럼 인류가 살 길을 호소하고 있다. 그는 평생 인간의 지성과 애정을 신봉하고 그를 위하여 그의 전 생애를 바쳤다. 그야말로 영국의 탁월한 귀족으로 태어나서 끝까지 이성적 평민으로 살아간 사람이다. 그의 할아버지 존 러셀은 1830년대 시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자유경제체제를 확립해 가기 위하여 싸운 빅토리아시대의 가장 진보적인 정치가였다. 그는 나폴레옹이 엘바섬에 귀양 갔을 때 찾아가기도 하였고, 1832년 선거개정법을 통과시킨 공로로 두 번이나 수상이 되어 1848년대의 가장 위험한 혁명기를 무난히 넘길 수가 있었다. 이러한 집안에서 태어난 러셀에게 가장 큰 유혹은 정치계에 투신하는 것이었다. 그에게는 언제나 중요한 정치적 지위가 제공되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정치가 있기 전에 철학이 있어야 한다”는 명석한 판단으로 정치의 구렁텅이에 빠져들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치적으로 정말 어렵고 어두운 시대이지만,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상상력을 가진 사람만 있다면 이 시대는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였다. 그는 세상에 나온 지 얼마 안되어 어머니를 잃고 세살도 되기 전에 아버지를 잃었다. 아버지는 극단적인 자유주의자로 죽으면서도 자기 아들의 후견인으로 두 사람의 무신론자를 지명할 정도였다.

그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깨뜨리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도입하였다. 그것은 논리의 세계에 함수를 도입하여 실제이론을 관계이론으로 고쳐버린 것이다.

러셀은 할머니 품에서 자라났다. 할머니는 엄격한 장로교회의 청교도였다. 그녀는 명랑하였고 마음이 트인 여자로서 세상과 타협하기를 싫어했으며, 비겁한 것을 가장 싫어했다. 그녀는 아일랜드의 독립을 지지하고 영국의 제국주의 정책에 반대하였다. 이러한 할머니를 러셀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른다. 할머니는 러셀에게 어려서부터 프랑스어와 독일어를 배우게 하였다. 5살 때 그는 지구가 둥글다는 말을 듣고 땅을 파보기도 하였다. 파들어 가면 정말 지구 저쪽으로 나갈 수 있는지를 실험해보기 위해서였다. 어려서부터 경험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그에게 수학은 하나의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다.

그가 11세에 유클리드 기하학을 배우기 시작할 때 증명할 수 없는 공리를 아무리 해도 인정할 수 없었다. 공리는 자명한 것이 어디 있는냐고 덤벼들기도 하였다. 그는 정말 자명한 것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가장 자명하다는 수학의 원리를 파고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것이 후에 「프린치피아 마테마티카」이다.

그는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자 할아버지 서재에 들어가서 역사든 문학이든 닳치는 대로 읽어가기 시작한다. 바이런, 테니슨, 셸리 등의 시에 매혹되어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서재에 박혀 있었다. 그는 작은 아버지의 도움으로 과학에 관한 지식도 얻었다. 그의 풍성한 지식욕은 고독한 귀족생활에 절대적인 반려가 되었다. 그는 귀족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가보지 못했다. 그는 무엇이든 집 안에서 배웠다.

그러나 그에게도 18세에 대학에 가는 것이 허락되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트리니티대학이 그의 모교가 되었다. 그는 거기에서 좋은 친구를 만날 수가 있었다. 철학자 화이트헤드, 무어, 과학자 러더포드, 톰슨, 경제학자 케인즈, 마샬 등 세계적인 학자들을 친구로 가질 수가 있었다. 그들은 밤을 새워가면서 토론의 꽃을 피우기도 하고 공동연구로 대학생활을 아름답게 수놓아 갔다. 러셀은 3년 동안 수학을 전공하였다. 그리고 수학시험에 통과하자 수학책을 모두 팔아서 철학 책을 샀다. 그가 졸업반이 되어 교수나 사회 저명인사들이 모이는 만찬회에 참여할 때는 의례 철학과 도덕에 관해서 제법 즐겨 이야기하였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그는 미국에서 건너온 퀘이커교도와 결혼하게 된다. 그들은 같이 독일에 건너가서 사회주의를 연구하기 위하여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끈기 있게 읽어내려 갔다. 그는 영국에 돌아와서도 마르크스의 철학을 파 올라가 헤겔과 칸트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그는 헤겔이나 칸트의 수학적 인식이 이론적으로 잘못된 데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의 논리는 유클리드의 공간과 논리 위에서 있었다. 그는 일원론의 독단을 넘어서서 새로운 다원의 철학체계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때 그는 26세의 젊은 나이였다. 그는 다시 칸트를 넘어서 라이프니츠로 파고 들어갔다. 라이프니츠는 미분·적분의 창안자요, 다원론의 철학을 체계화한 사람이다. 그는 마침 케임브리지대학의 철학 강사가 된 것을 기회로 라이프니츠의 특강을 하면서 라이프니츠의 철학을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깨뜨리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도입하였다. 그것은 논리의 세계에 함수를 도입하여 실체이론을 관계이론으로 고쳐버린 것이다. 그는 수학의 근원이 어디에서 끝이 나게 되는지 무척 궁금했다. 1900년 7월 국제철학회에

참석하여 그는 이탈리아의 수학자요, 논리학자인 페아노를 만나 기회 논리의 세계를 알게 되었고, 논리적 기술을 수학에 적용하면 수학의 원리가 캐내질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다.

그는 화이트헤드의 도움을 받아 10년이란 세월을 소비하며 세 권으로 된 「수학원리」를 완성하게 되었다. 이것이 「프린치피아 마테마티카」이다. 그는 논리학이 모든 과학의 원리를 포섭할 수 있는 큰 보자기라고 생각한 라이프니츠의 보편학의 생각을 발전시킨 것이다. 모든 산술의 개념은 논리의 개념으로 정의되고 산술의 정리는 논리학의 공리로 증명되며, 산술뿐 아니라 수학 전체가 논리학의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순수함의 정의로부터 시작하여 수학과 논리학의 관계를 밝히고 기호논리를 발전시켜 공간, 물질, 운동에까지 수리철학을 전개해 간다. 이 책으로 그는 세계적인 학자가 되었고 그의 교실에는 세계적인 천재가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서도 오로지 청년 비트겐슈타인은 러셀이 가르칠 수 있는 최고의 두뇌였다. 케임브리지에는 현대철학을 지배하는 세 거물이 모이게 되었다.

러셀, 무어, 비트겐슈타인이다. 그들은 하나가 되어 오늘의 분석 철학을 개척하여 갔다. 결국 새로운 물리에서 새로운 논리를 끌어내고 새로운 논리에서 새로운 윤리를 끌어내자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다. 42세에 그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을 때 엘리엇트를 가르치게 되지만 그해 1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되어 그는 영국으로 돌아와 반전운동을 전개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다. 그는 감옥에서도 4시간의 철학저술과 4시간의 철학독서와 4시간의 일반독서를 하면서 하루도 건너는 일이 없었다. 감옥 속에서 그는 「수리 철학 서설」을 쓰고 듀이의 논리학의 상세한 서평을 썼다. 제1차 대전이 끝나자 그도 풀려나왔다.

그는 제국주의 전쟁의 근원이 자본주의에 있다고 생각하고 평화의 기반을 공산주의에서 찾아보고 싶었다. 1920년 영국의 노동당 대표들이 소련을 보러간다는 말을 듣고 그는 수행원의 한 사람이 되어 소련으로 갔다. 그들은 소련에 갈 때는 조국으로 돌아가는 기분으로 들어갔다. 그는 국영 빵 배급소 앞에서 지치고 여윈 노동자들이 긴 줄을 이루고 빵 배급을 기다리는 것을 보았다. 남루한 그들의 옷과 가난한 살림은 비참한 것이었다. 러셀은 레닌도 만나고 트로츠키도 만났다. 그들의 독재체제와 폭력혁명을 자유사상가 러셀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다만 러셀의 마음에 든 것은 거리에 창기나 주정뱅이들이 없다는 것뿐이었다. 평화의 푸른 꿈을 안고 소련을 찾아간 러셀이 느낀 것은 실망뿐이었다. 그는 인류의 앞날이 암담하다는 것을 느꼈다. 공산주의는 기독교의 여호와대신 유물론을, 구세주대신 마르크스를, 교인대신 프롤레타리아를, 교회대신 공산당을, 재림대신 혁명을, 지옥대신 자본주의자들의 처형을, 천 년 왕국대신 공산사회를 부르짖는 변질적, 독재적 광신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다시 중국으로 가게 된다.

그의 나이는 벌써 48세였다. 중국에서 그는 손문을 만났으며 중국의 학생 데모가 날로 성해가고 있을 때 러셀의 방문은 그들에게 매우 격려가 되었다. 러셀은 손문이야말로 중국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자유주의자로, 손문은 러셀이야말로 중국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영국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러셀은 이곳에서 1년을 지내면서 강연과 강의로 바빴다. 지나친 과로와 강추위로 그는 폐렴에 걸리게 되었다. 러셀은 며칠동안 사경에서 방황하였으며 그가 죽었다는 보도도 여러 번 전해지기까지 하였다.

중국에서 돌아온 그는 인습적인 도덕은 인간의 생기를 위축시키고

전쟁으로 얼룩진 암담한 세계와
그 미래에 인간의 살길을 제시한
러셀의 정신은 원자폭탄보다 더 강하였다.

인간의 애정을 고갈시켜 진실을 허위로 만드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여, 자기의 도덕관으로 새로운 교육을 자기 자녀에서부터 시작해보고 싶었다. 판에 박힌 듯한 허식과 억압으로 교육하고 있는 학교에 자기 어린애를 보낼 생각은 없었다. 그는 자유주의 교육의 학교를 세우기로 하였다. 그것이 비콘힐 학교다. 그는 애들에게 아무런 억압도 가하지 않고 천진난만한 교육을 시도해 보았다.

그는 「교육론」을 쓰고 어린애들의 생활모습을 세밀히 관찰하면서 거기서 새로운 윤리를 모색해 보았다. 그러나 10년도 못가서 극심한 재정난으로 부득이 교육에서 손을 떼게 된다. 러셀은 66세에 어린애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6년간을 보낸다. 그것은 그가 67세 되던 해에 또다시 제2차 세계대전이 터졌기 때문이다. 반전주의자 러셀은 전쟁에 미친 영국에게는 무용지물이다. 그는 처음 2년을 시카고 대학에서, 그리고 한 해는 캘리포니아대학에서 강사노릇을 했다. 전쟁이 오래 계속되자 그는 좀처럼 영국에 돌아가게 될 것 같지 않았다. 그때 뉴욕대학에서 공식 초청이 왔다. 교수로 특채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미국 종교지도자들의 반대로 그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그들은 러셀이 청년을 부패시키는 부도덕한 사상을 가진 공산주의자라는 것이다. 한 여인의 고소에 의하여 시 고등교육위원회는 러셀을 미국인이 아니라는 것과 교수시험을 치르지 않았다는 것과 그의 저서가 음란한 사상으로 차 있다는 이유로 러셀의 채용을 거부하였다. 그는 뉴욕에서 일자리를 잃은 후 하버드대학에서 윌리엄 제임스 기념강연을 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다. 그는 할 수 없

이 출판사와 계약하여 책을 써준다는 것을 전제로 생활비를 얻어 쓰게 되었다. 이리하여 그때 쓴 책이 유명한 그의 「서양철학사」이다. 곤궁과 궁핍 속에서의 6년이란 객지 생활은 그에게 조국애와 깊은 향수에 젖게 하였다. 그런데 아직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모교인 케임브리지의 트리니티대학이 그를 불러주었다. 오랜만에 그는 고국의 산천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때 독일의 무서운 폭탄이 영국을 파괴하고 있었다. 그 다음해는 연합군의 무서운 원자폭탄이 적지를 파괴해갔다. 이리하여 73세의 러셀은 세계대전의 종결을 보면서 이 것이 전쟁의 끝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다. 앞으로 더 무서운 전쟁이 일어날 것만 같았다. 그는 또다시 마이크에 매달려 세계평화를 호소하기 시작했다. 그는 말할 기회만 있으면 어디든지 갔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각국을 갔으며 한 번은 노르웨이에 갔다가 비행기 사고로 얼음이 떠있는 바다에 빠져 76세의 노인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기도 하였다.


그는 미국을 거쳐 호주까지 강연을 갔다. 그러나 5년도 채 못가서 한국에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났다. 그는 이 전쟁이 세계전쟁으로 변질까봐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른다. 평화의 비둘기 울음소리는 전쟁의 뱀을 잠들게 할 수가 없었다. 80이 넘는 러셀은 울음소리를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평화를 갈망하는 문학작품을 쓰기 시작했다. 그에게는 본래 문학에 소질이 있어 콘라드나 로렌스와도 깊은 친교가 있었고, 엘리엇나 서머셋 모옴과도 가까웠다. 그는 “나는 지금까지 철학을 위해서 80년을 바쳤는데 앞으로 80년은 소설을 위해서 바치겠다”라고 말하고 문학적 창작에 정열을 쏟았다. 그는 「자유인의 신앙」 「과학적 전망」 「교회의 악마」 「엑스양의 모험」 「명인의 악몽」 「신앙과 산」 등 젊은 그의 꿈을 그려가면서 암담한 미래의 살 길을 제시한

다. 사람들은 러셀의 무진장한 활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세계에는 원자폭탄도 있지만 러셀의 정신은 원자폭탄보다도 더 강하다고 칭찬하는 사람도 있다. 그는 수소폭탄의 출현을 예언하고 과학이야말로 인간을 전멸시킬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그는 아인슈타인과 같이 수소폭탄 반대선언을 발표하고 세계정부의 창설을 주장했다. 군사력을 독점할 수 있는 세계정부만이 평화의 윤리를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우선 온 세계인민들이 싸움으로 열을 올리고 이데올로기의 계급적 광신과 국수주의자들의 전투적 정열과 자기 혼자만 잘살아보겠다는 교육적 경쟁심을 없애야만 온 세계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평화롭고 새로운 세계를 창설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싸움이 터질 때마다 케네디, 후르시초프, 주은래 등에게 여러 차례 전쟁의 방지를 촉구하는 편지를 썼다. 그리고는 핵무기 반대동맹을 결성하여 총재가 되었고, 1961년 89세의 러셀은 핵무기 반대의 데모행렬의 선봉에 섰다. 1962년 월남전쟁이 일어나자 그는 미국의 철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1965년 6월에는 미국의 텔레비전 방송을 통하여 미국의 제국주의는 월남의 적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적임을 미국의 양심에 호소하고, 러셀 국제전범 법정을 창설하여 미국의 정치대표자를 전범으로 규탄하는 제1회 공판을 스톡홀름에서 열었다. 이때 재판장은 사르트르요, 러셀은 명예회장이었다. 이때 미국은 인류에 대한 범죄자로 규정되었고, 그는 1967년에 「베트남전쟁 범죄」라는 책을 쓴다. 그때 그의 나이 95세였다.

24세에 처음으로 「독일사회 민주주의」라는 책을 출판한 후부터 28세에 「라이프니츠 철학」, 30세에 「자유인의 신앙」, 31세에 「수학의 원리」, 38세에 그의 획기적인 저서 「프린치피아 마테마티카」,97세

에 「자서전」 3권을 끝내고 98세의 이른 봄에 세상을 떠난다. 불사신처럼 20대에 터진 그의 화산은 90대까지도 계속 폭발하는 무서운 위용을 나타냈다.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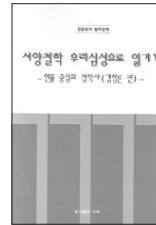
- 이 글은 '서양철학 우리심성으로 읽기 5'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없이 무단 전재나 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현재 **김흥호** | 다석 유명모 선생께서 내리신 호는 현재. 1919년 2월 26일 평양에서 부친 김성항과 모친 황성룡 사이의 여섯 형제 중 다섯째로 출생. 1944년 일본 와세다대 법학부 졸업. 1956~1984년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 및 교목실장. 미국 버틀러대 대학원 종교사학 석사. 1986년 감리교신학대 종교철학과 교수. 1996년 이화여대 명예 철학박사.<현재 김흥호 선생은 매주 일요일 이화여대 교회에서 성경과 동양의 고전을 강의하고 계십니다.>

추천도서 마음에 닿은 책 Good Book

서양철학 우리심성으로 읽기 5 - 인물중심의 철학사(경험론 편)

김흥호 저 | 사색 刊 | 12,000원



김흥호의 철학강좌 <서양철학 우리심성으로 읽기>. 1970년부터 1981년까지 12년에 걸쳐 발간한 1인 월간지 '사색'을 주제별로 묶어 전10권의 전집으로 발간하였던 것 중에서, 서양철학에 대한 내용들을 새롭게 편집하여 엮은 것이다. 서양철학을 우리의 심성으로 이해하고 읽어내고자 했다. 제5권에서는 근세의 경험론에 속하는 철인과 현대의 자유진영에 속하는 철인들의 생애를 소개한다.